

뉴트리, 1분기 매출액 270억 원... "분기 최대 실적 경신"

에버콜라겐, 판도라다이어트 등 주력 브랜드 집중 마케팅으로 최대 매출 기록
메가 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

[2019-05-30] 이너뷰티 전문기업 뉴트리(대표이사 김도언, 박기범)가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.

30일 뉴트리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270억 원, 영업이익 15억 원, 당기순이익 11억 원으로 집계됐다.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.1% 증가한 수치이며, 분기 매출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.

뉴트리는 이번 호실적의 배경으로 △핵심 브랜드 경쟁력 강화 △판매 채널 다변화를 꼽았다.

콜라겐 소재의 이너뷰티 주요 제품인 에버콜라겐은 연초 집중 마케팅을 펼쳐 전년 동기대비 31% 판매량이 확대됐다. 특히, 다이어트 전문 이너뷰티 제품인 판도라다이어트는 전년 동기대비 판매량이 134%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.

뉴트리의 1분기 실적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52.3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의 경우 흑자로 전환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.

뉴트리 관계자는 "주력 제품을 메가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"며 "1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의 선집행으로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했으나, 이번 홍보 효과로 제품 인지도와 브랜드파워가 강화돼, 수익성은 빠르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

이처럼 효과적인 마케팅과 함께 뉴트리는 주요 제품의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며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. GS홈쇼핑 단일채널에서 판매하던 에버콜라겐을 지난 1월 현대홈쇼핑에 론칭했고, 그 후 홈앤쇼핑, CJ오쇼핑 등 지속적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했다. 특히 매 방송마다 완판 행렬을 이어가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.

뉴트리 관계자는 "홈쇼핑 매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8.5%증가한 171억원을 기록했으며, 홈쇼핑 채널에서의 제품 판매가 온라인 구매 증가로 이어지면서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5.2% 증가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"고 말했다.

이어"홈쇼핑 채널 외에도 소비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한편, 뉴트리가 보유한 6개의 대형 브랜드를 각각 1,000억 원대 메가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"고 덧붙였다.

구분(백만원)	1Q19	1Q18		4Q18	
	당기실적	전년 동기	YoY	전분기	QoQ
매출액	27,029	23,485	15.1%	17,744	52.3%
영업이익	1,453	3,274	(55.6%)	(317)	흑자전환
당기순이익	1,143	(2,530)	흑자전환	(703)	흑자전환